



감사와 사랑을 담아 브라질에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항상 부담과 기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과,

이 길 끝에 주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라는 기대가 함께 합니다.

비록 계획은 제가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1. 저의 다음 행보를 위한 선교와 상담에 관한 집중코스를 잘 마치고 브라질로 복귀했습니다. 강의만 듣고 오는 뻘뻘한 일정에 몸이 힘들었는지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선교라는 것이 열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님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앞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잘 배워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잘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2. 바쁜 일정 중에도 만남이 허락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총회 세계선교부에 방문하여 저의 선교상황을 보고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길교회 선교팀이 초대해 주셔서 새벽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작지만 저의 선교사역을 통해 그분들과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엔 이곳을 다녀간 군선교사역을 하시는 MSO에서 저의 방문 소식을 듣고 초대해 주셔서 귀한 식사대접도 받고 선교보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출국 전날 마침 이번 74기 총회선교사후보생 훈련 현장을 잠시 방문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작년 제가 훈련받을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마음 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3. 상담사역은 인내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나의 보폭이 아니라 내담자의 보폭에 맞추며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진행 속도가 다를수록, 결국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상담사가 아니라 내담자의 의지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사가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개인상담을 위주로 하지만, 점차 집단상담이나 세미나를 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 이곳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과 좀 더 활발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브라질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선교의 현장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다양한 선교의 현장 소식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약간의 사고로 발을 다친 선교사님을 방문하여 위로하기도 했고, 반대로 제가 또 그분들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곳 선교지를 방문하여 설교도 하고 사역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선교사 간에 경쟁구도가 아니라 협력구도가 되는 바람직한 모델로 서가길 소망합니다.



5. 한 달에 한 번씩 제공하는 구제품(Cesta Basica) 지급도 계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과 빈민들에게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품을 전달하는 날을 이분들이 전보다 더 기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제품 전달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이분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열리길 간구했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구제품 지급을 통해서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열 수 있는 형편이 못되지만 함께 말씀 교제를 할 기회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 무엇이 선교인가를 고민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도 고민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교 시작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며 뛰어들었던 선교에서, 지난 1년은 기도하며 머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남들이 하나까 나도 물어가는 선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맞춰주신 선교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년의 머무름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그 방향을 찾았고 한발씩 내딛으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개척보다 교육에 더 비중을 두며, 작지만 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선교를 기대해봅니다.

사진으로 다 담아내지 못한 소식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오고가는 소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모든 사역 가운데 나의 보폭을 하나님께 맞추며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2. 구제사역이 말씀 안에서 정착 발전하게 해 주세요.
3.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해 주세요.
4. 선교센터로 사용될 준비된 사무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
5. 오직 사랑과 용납함으로 주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을 복음 안에 품게 해 주세요.
6. 주변과 화목하고 건강한 동역과 협력이 가능한 조화와 존중이 있는 선교가 되게 해 주세요.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브라질 상파울에서 김경완, 김지훈, 에이미, 제이시 드림